

보도시점

2026. 9. 24.(목) 13:00

배포

2026. 9. 24.(목) 06:00

농식품부 장관, 충청남도 추석 연휴 방역 대응체계 현장 점검

- 충남도청 재난상황실·당진시 거점 소독시설 점검 및 방역 관계자 격려 등

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‘농식품부’) 장관은 9월 24일(목) 오전, 충청남도청 재난상황실과 당진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이하 ‘AI’)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실태 및 추석 연휴 기간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방역 관계자를 격려하였다.

이번 점검은 해외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증가*하였고, 9월 인천,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**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현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해외 야생조류 AI 발생 현황(1~8월): ('25) 1,432건 → ('26) 2,957건(106.5% ↑)

** 구제역('26.9월 기준): 총 13건(인천 강화 3, 경기 고양 2, 경북 예천 8)

이날 충청도는 가금·양돈농가 현장 점검, 가금농가 교육, 맞춤형 전문 관리관 파견 및 산란계 밀집단지 관리 등 '26/'27 시즌 방역대책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, 당진시는 거점 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관리 방안을 중점 보고하였다.

송미령 장관은 “AI 발생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, 지난 겨울철 피해가 컸던 산란계 밀집 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가 중요하다”라며, 현장 여건에 맞는 방역 관리대책의 추진을 당부하였다.

아울러 “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락 없는 백신접종과 외부인 출입통제·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”을 독려하였다.

이어 당진시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소독시설의 무인자동화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, “농장을 방문하는 차량·사람으로 인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축산차량 및 관계자 소독 등을 면밀히 관리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마지막으로 송미령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방역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“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축산농가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 생활화와 함께,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철새도래지·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<구제역> <ASF>	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01-2531)
		담당자	서기관	이병용 (044-201-2532)
담당 부서 <HPAI>	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담당자	서기관	김지호 (044-201-2537)
		책임자	과 장	황성철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원 (044-201-2555)